

##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있다

'재원 반영 노력 주체' 국가 빠져  
사업비 초과 발생할 땐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 강요  
이전 부지 공공성 보다는  
아파트 등 '돈 되는 사업' 불가피  
광주시·전남도 공동 대응 나서



22일 활주로가 텅 빈 광주공항 전경. 초과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명시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내에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에 국가지원을 명시한 정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내에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강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확인하고, 조항 삭제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지로 예상되는 전남도 역시 주민 여론 설득과 지역개발을 위해 건의했던 재원 반영 주체에 국가(정부) 추가, 이전지와 지역민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모두 제외됨에 따라 입법예고 안을 다시 만들어 제안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찬성, 반대 등 의견 접수를 받는다. 국방부는 부칙으로 해당 제정안을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위한 '제3조 2항'이 자치단체에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 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사업비 부족분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돈 안되는' 공공성 보다는 대규모 아파트 조성 등 '돈 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기존 부지(현 광주 군공항 부지)의 가치(땅값 등)를 최대한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초과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일단 조만간 '쌍둥이 법'으로 불리며 함께 국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시행령 수정 의견 등을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를 앞두고 일부 조항 수정과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했던 전남도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6건에 이르는 전남도의 건의사항이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앞서 '제3조 2항' 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반영 노력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해 줄 것과 '제6조 3항' 국가의 초과사업비 지원 조문 강행 규정으로 변경,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9조(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참여)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군 공항 이전사업에 따라 생활기반 상실 이주자를 위한 생계지원, 이주정착·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이전 주변 지역의 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를 인상 지원, 이전 주변 지역 교통망 확충 및 신도시·산업단지 등 인프라 조성 지원 등을 담은 신설 조항을 요청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은 제3조 2항을 보면 사업 재원 반영 노력의 주체에 국가는 빠지고, 자치단체장만 명시돼 있는 등 특별법 시행령안에 수정 또는 신설해야 할 조항이 많다"면서 "조만간 광주시와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할 추가 입법 예고안을 새로 만든 뒤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지원을 명시한 정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내에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강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확인하고, 조항 삭제 등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조만간 '쌍둥이 법'으로 불리며 함께 국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시행령 수정 의견 등을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를 앞두고 일부 조항 수정과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했던 전남도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6건에 이르는 전남도의 건의사항이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우크라이나 지원 '비살상 무기' 선별 착수

장애물개척전차 등 제공 가능성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비살상 무기 목록에서 지원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기 위한 실무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비살상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비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한 목록을 받았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양 정상간 논의에 따라 부처 간에 필요한 실무적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에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후송차량, 장갑구급차,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방공레이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뢰 제거 장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육군에 보급된 장애물 개척전차(K600)와 휴대용 소형 지뢰탐지기(PRS-20K) 등의 제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물개척전차는 K1A1 전차에 지뢰 제거 장비와 굴착발 등을 장착한 것으로,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기동로를 확보하는 데 동원된다.

김광진 부시장, 5·18 전야제 때 법카로 술판 ▶2면  
신종종 버 '강대찬' 품질 저하...생남 농심 ▶6면  
굿모닝 예향-황중환 카투니스트 ▶22면

### 누리호 3차 발사 D-1

차량 적재 후 '롤아웃' 결정  
오늘 오전 중 발사대로 이송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기기 위한 차량 적재 작업이 3차 발사를 앞둔 22일 긴장감 속에 마무리됐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항우연 연구진은 이날 오후 5시 발사 준비위원회를 열고 준비상황을 평가해 23일 오전 누리호 '롤아웃'(발사체가 조립동에서 나오는 과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누리호는 23일 오전 7시 20분께 조립동에서 출발해 발사대로 이동하게 된다.

작업자들은 이날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누리호를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 위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무인특수이동차량은 조립동에서 1.8km 떨어진 발사대까지 누리호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다.

전날까지 진행된 조립동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김기석 과기정통부 우주기술과장은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호는 신조립동과 구조립동으로 나뉜 조립동 중 내부 깊숙한 공간인 신조립동에 총조립이 완료된 채 몸체를 받치는 설비인 '치구'에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특수차량이 주차된 구조립동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조립동 가장 깊숙이 있던 누리호를 조립동 현관 앞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후 특수차량에 누리호를 올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길이 47.2m로 아파트 15층 높이에 지름 최대 3.5m, 기체 무게만 17.5t에 달하는 누리호를 조심스럽게 차량 위로 올려야 하는 만큼, 이날 하루 내내 작업을 진행했다고 항우연은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2022 전국한우경진대회 종합우승

# '전라남도 명품 한우브랜드'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청정지역의 자연을 벗삼아  
우리 한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순한韓牛

녹색한우

함평천지한우

**지리산순한한우는**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5회  
'명품인증'을 수상한  
전라남도 동부권 한우광역브랜드입니다.

**녹색한우는**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3회  
'대통령상(大賞)'을 수상한  
전라남도 서부권 한우광역브랜드입니다.

**함평천지한우는**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농협회장상'을 수상한  
전남의 한우브랜드입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

**NH순한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TEL. 061) 744-6700 FAX. 061) 744-6701 www.soonhanwoo.com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TEL. 061) 332-0214 FAX. 061) 332-0217 www.greenhanwoo.com

**함평축산협동조합**  
TEL. 061) 324-0046 FAX. 061) 322-0302 www.chunghwanwoo.co.kr